

'효리네' · '윤식당2' · '한끼줍쇼' 성공공식 있다



시청률이 16%나 나오며 시즌보다 더욱 사랑받는 tvN '윤식당 2'와 JTBC '효리네 민박 2' '한끼줍쇼' 등을 보면 요즘 예능의 성공방향이 나온다.

우리의 예능이 리얼리티 예능이 주가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 주며 시청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학습하고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비연예인이 여기에 함께 들어오는 것도 이제는 무척 자연스럽다.

리얼리티 예능이 외국에서는 일

반인들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유사 리얼리티 예능(리얼 버라이어티)부터 연예인들로 시작했고, 100% 리얼 예능에서도 연예인이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두 일반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형태다.

여기에는 몇몇 공통점이 있다. 일반인과 연예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점이 첫째다. '효리네 민박'에서는 제주에 있는 효리네 집에 민박을 함으로써, '한끼줍쇼'에는 이경

규 강호동 팀에게 저녁 상을 허락함으로써 그리고 '윤식당'은 그곳에 식사하러 갑으로써 일반인이 연예인과 섞이게 된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일반인과 연예인간의 관계맺기 방식, 즉 위계(位階)다. 연예인이 일반인 위에 있으면 안된다. 판타지에도 연예인이 일반인 아래에 있는 것도 좋다. 적어도 둘 간의 관계는 종적 관계가 아니라 횡적 관계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인과 연예인이 합

일반인 비중 높이고 대접받는 이미지 선사
'효리네...' 민박객을 모시는 '판타지' 제공
'윤식당2' 스페인 손님 수다분량 늘릴 예정
'한끼줍쇼' 한끼 허락한 일반인 삶 듣는 구조

계 하는데도 불과 기름처럼 존재하며 일반인의 비중이 낮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들 세 프로그램들은 일반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 연예인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일반인이 연예인들의 틀러리를 서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연예인이 비연예인을 모시는 구조다.

가령, '효리네민박'은 일반인들에게 아이유나 윤아가 자신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로망일 수 있다. 그런데 그녀가 커피까지 내려주었다. 이효리와 이상준은 민박객에게 전복죽을 끓여주었다. 뭔가 확실하게 해주는 판타지가 일상 리얼리티 예능에서 구현되고 있다.

일반인과 연예인들이 섞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섞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윤식당'은 연예인 종업원들의 음식 준비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손님인 외국인 일반인들의 토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대주 작가는 '윤식당'의 인기 비결을 '편지를 하다 보면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손님들의 이야기,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있다. 음식 맛이 좋다가 아닌 육아, 살면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와 공통적이다. 이런 게 위트가 된다.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게 재미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나영석 PD는 "갈수록 스페인어 번역 분량이 많아진다. 1~6일차 번역은 금방했지만, 7일차부터는 번역 분량이 비명을 질렀다. 수다만 뽀글간 손님도 있다. 반상회 하듯 사랑방으로 변해갔다. 훨씬 친근해졌고, 우리 마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해 카라치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진주 PD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단 체화식의 경우는 스페인어 번역을

한달 동안이나 했다. 갈수록 손님이 더 많아진다"고 전해 일반인의 비중을 더 높일 것임을 전했다.

'한끼줍쇼'도 마찬가지다. 저녁 한끼를 허락한 일반인의 삶을 연예인이 듣는 구조다. 연예인이 이들에게 불속 찾아와 듣는 것은 토크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을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 몇몇 리얼리티 장치들을 두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남의 삶을 들여다본다. 워낙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소개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가 헷갈리는 요즘이다. 한 번밖에 못사는 인생이 많이 쓰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김생민의 잔뜩이 '그웨이!' 전략도 막히는 시대다. 양 극단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양성의 시대다.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삶의 방식에 대한 공감을 통해 안락감을 느끼게 해준다.

연예인이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섞여,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통해서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小確幸)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직 프로그램상으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반의 공간인 '케렌시아' '라곰' '올로' '휘게' 등 요즘 소비 트렌드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첫방 '키스 먼저 할까요', 10% 돌파 비결



감성의 푹푹한 로맨스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화제성만큼 시청률은 연

KBS 2TV '마녀의 법정' 이후 3개월만 10% 돌파다. SBS 새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가 잠재되었던 월화극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첫 방송된 '키스 먼저 할까요'는 전국기준 시청률 1부 8.1%, 2부 10.5%, 3부 9.9%, 4부 9.1%를 기록, 단숨에 월화극 왕좌를 차지했다. 시청률이 30분 기준으로 나뉘어 집계가 되긴 했지만, 일단 2부에서만큼은 10% 돌파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종영된 '마녀의 법정' 이후 약 3개월 만의 일. 그간 월화극은 지상파 3사 뿐만 아니라 tvN, JTBC 등 케이블과 종편 모두 시청률에서는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월화극 1위를 달렸던 KBS '저글러스'도 9.9%에서 머물러 10% 돌파에는 실패했다.

'키스 먼저 할까요' 보다 먼저 방송을 시작한 KBS '다시 오 로맨스'의 상황 역시 좋지 못했다. 윤두준 김소현이 주연을 맡아 아닐로그

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키스 먼저 할까요'와 연속 방송 맞대결을 펼친 지난 20일 방송분 시청률은 3%대로 자체 최저 시청률을 얻었다.

그런 가운데 '키스 먼저 할까요'가 10% 돌파는 물론 11시대 방송분에서도 9%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얻은 것.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좋다. '어른 멜로'라고 소개가 됐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코믹적인 색채가 강해 유쾌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

여기에 감우성과 김선아, 박시연 오지호, 예지원, 김성수 등 출연 배우들의 호연이 더해져 깊이감 있는 드라마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배우미 작가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대사와 각 인물들의 서사, 뒷 이야기를 궁극에 하는 스토리 라인,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더욱 빛이 나는 매력적인 캐릭터 등이 앞으로의 '키스 먼저 할까요'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날것의 공포"...새 장르의 문 연 체험 공포물 '곤지암'



'곤지암'이 올봄 극장가를 공포로 물들일 체미를 마쳤다.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는 영화 '곤지암' 제작발표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범식 감독, 위하준 박지현, 오이연, 문예원, 박성훈, 유재윤이 참석했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

이지면서 결국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곤지암'은 티저 영상 공개 6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돌파, 실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정범식 감독은 "곤지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100만 뷰 돌파될지 몰랐다. 이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곤지암 정신병원을 구현해내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냈다는 정 감독은 "곤지암 정신병원" 공간을 보면 복도 형태에서 양쪽에 병실이 있다. 영화 촬영 장소로 단숨에 상상의 공간을 가져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라며 "자연이 깃든 것을 봐야했는데 흉가나 버려진 곳들은 다 찾아냈다. 그러던 도중 부산 영도의 해사구가 가장하게 되면 그럴 듯하고 무서운 정신병원이 될 거 같아 미술적으로 세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 감독은 "공간 역시 주인공이다. 여러 공간도 캐릭터가 있는 주연이라고 생각했다. 실현실 집단 치료실, 미스터리한 공간 등 설정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설정하고 미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저희의 숙제였다"라며 '곤지암'에서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곤지암'은 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만으로 만들어낸 공포감을 더욱 조성시켰다고 한다.

'곤지암'이 곤지암 정신병원이라

는 특수한 장소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로 대중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부지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이 화제되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으며, 병원 부지 소유주는 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

이에 정범식 감독은 "당연히 그쪽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자체와 제작사 쪽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뉴스나 '그것이 알고있다'에 나오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했다. CNN이 선정된 7대 미스터리한 곳을 모티브로 상상해 만들어냈다. 새로운 형식과 숨은 메시지를 찾아보는 재미다. 새로운 시도와 형식이 가미된 영화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곤지암'은 신인배우들로 구성, 그들이 직접 카메라를 잡고 연기해 생동감을 더했다. 여러 대의 카메라와 생생한 소리 그리고 실제 장소가 주는 공포감이 더해진 영화 '곤지암'은 오는 3월 개봉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음력 1월 7일)

<p>▶ 쥐 세월이 갈수록 목표한 일 성취할 운. 근면 성실한 태도로 현 위치에서 전진하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으나 자식 걱정이 뒤따를 수. 3, 5, 10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으니 늦은 밤 운전은 삼가라.</p>	<p>▶ 용 상대의 솔직한 말을 물리칠 수 있는 과감한 성격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 4, 8, 12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을 줄 수. 3, 5, 10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을 줄 수. 3, 5, 10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을 줄 수.</p>	<p>▶ 원숭이 현재 위치에서 힘들더라도, 4, 8, 12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을 줄 수. 3, 5, 10월생 모임으로 과로 운전 시 건강에 이상을 줄 수.</p>
<p>▶ 돼지 그동안 혈통 간 다툼으로 불편했으니 화해시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어떨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마라. 지난 일 훌훌 털고 새롭게 헤쳐나갈 때 자식도 상처받지 않는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1, 5, 9월생은 파란색이 길조.</p>	<p>▶ 닭 비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돼야 온다. 시기를 잘 포착하라.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길이라면 가지 마라. 중도에 뒤돌아 오면 시간과 대리만 아플 뿐이다. 1, 4, 9월생 윗사람 조언이 보약이 되니 쓰더라도 참고 먹으라.</p>	<p>▶ 양 자신 있게 조언하는 것은 좋지만,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주로 인해 오랜만의 친구 모임에서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일 수 있으니 유념할 것. 7, 11, 12월생은 외출을 삼가라. 특히 건강에 주의하라.</p>
<p>▶ 호랑이 자기 마음을 자신이 알고 닦아야 남의 말에 의존하며 나아감을 보이면 큰 그릇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7, 11, 12월생 음주로 인한 순간적 실수가 예상되니 이성을 잃지 말고 선, 후배를 대하라.</p>	<p>▶ 말 진행하는 사업은 자신 있게 하고, 부부의 뜻이 일치해야 성취할 수 있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실천부터 하라. 욕심을 앞세우지 마라. 손실이 따른다. 4, 8, 11월생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듣는 자가 돼라.</p>	<p>▶ 개 자기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면서 걷는 격이다. 목표 있는 삶을 설계하라. 길이 있다. 4, 8, 12월생 3, 4, 7월생은 인간관계에서 회의를 느끼는 격. 이것이 아니라 싶다면 마음을 탄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가족 화합이 최상.</p>
<p>▶ 토끼 지금은 가족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2, 5, 7월생은 애인과 모처럼 만나 기쁜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될 수 있으니 언행에 신경을 쓰라. 생각이 다른 곳에 머문다면 머그머리가 다가오니 손윗사람 말을 유념하라.</p>	<p>▶ 양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도 허거운 상태구나. 자기 능력을 누구보다 자신이 안다. 현실로 돌아가 4, 8, 12월생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먼 길 떠나면서 무거운 마음 벗어던지고 운전에만 신경 쓸 것. 금전으로 친지와 의견충돌 있을 듯.</p>	<p>▶ 돼지 오늘만이라도 모든 일을 잊고 휴식하라. 그동안 어려운 일을 거론하면 모처럼 가족 만남에서 즐거울 수 없다. 분위기 파악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3, 5, 9월생 형제나 친척에게 도움받을 일 있다. 남, 서쪽이 길 방향.</p>